

“긴 장마에 덜 영근 복숭아, 태풍까지 덮쳐 막막하네요”

르포-태풍 '카눈' 피해 장성 복숭아 과수원 가보니

떨어진 복숭아들 진흙 속에 박혀...“이 아까운 걸” 남은 복숭아 수습
강풍에 가지도 부러져 허탈...“15년 농사 짓다 이번 같은 피해 처음”

“올 여름에 유독 비가 온 날이 길어 복숭아가 제대로 영글지도 못했는데 태풍까지 와버려 다 떨어져 버렸어.”

10일 오후 찾은 장성군 진원면의 복숭아 과수원은 제6호 태풍 카눈이 몰고온 강풍과 많은 비 때문에 전정터를 방불케했다. 비바람에 꺾이고 찢긴 나뭇가지는 폭격을 맞은 것 같았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과수원은 밤을 내딛기도 힘들만큼 질척였고 진흙 속에는 채 수확하지 못한 크고 작은 복숭아들이 박혀 있었다.

4300㎡(1300여평) 규모 과수원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채삼순(여·66)씨는 까맣게 변해버린 복숭아를 바라보며 “이 동네에서 복숭아 농사만 15년을 지었는데 이번 같은 피해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탄식했다.

이날 오후 태풍이 북상하면서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채씨는 바로 과수원으로 달려갔다.

떨어져 버린 복숭아는 이미 썩기시작해 손 쓸 수조차 없었지만 그나마 가지에 붙어있는 복숭아를 수습하기 위해서다.

채씨는 바구니에 담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연신 “아이고 이 아까운걸...”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채씨는 태풍이 지나간 뒤 과수원을 돌아보며 허

탈해 했다. 아직 수확할 정도로 자라지도 못한 복숭아들이 모두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맛있는 복숭아를 키우기 위해 채씨는 올 봄부터 비료를 뿌리고 가지치기를 하며 매일 돌보았다.

하지만 유난히 길었던 올해 장마 탓에 복숭아가 영글지 못했다. 앞치는데 단진격으로 태풍 카눈은 복숭아 농장을 쓸대밭으로 만들었다.

채씨는 수확기가 늦어졌지만 맛있는 복숭아를 키우기 위해 집중호우가 지나도 수확을 미뤘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간 하룻밤 새 대부분의 복숭아가 다 떨어져 버렸다.

거금을 들여 구매한 농기계들까지 모두 고장이 나버렸고, 또 복숭아 나무 가지들이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해 다 부러져 채씨의 허탈감은 더 깊었다.

채씨는 “열매(복숭아)가 떨어지면 차라리 그러려니 하겠는데, 가지가 툭 꺾여버리니 당장 묘목을 새로 사야 할 판”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가지가 꺾이면 새로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가지가 붙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채씨는 “올해는 일조량도 적고 비도 많이 와서 맛도 장담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마저도 다 떨어져 버렸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0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북구 대촌동의 도로에 가로수 가지가 부러졌고(왼쪽) 같은 날 오전 10시께 화순군 화순읍 한 건물의 간판이 떨어졌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화순군 화순읍 한 건물의 간판이 떨어졌다. (광주 북구청·전남소방 제공)

태풍에 발목 잡힌 광주·전남

항공기·여객선 결항에 철도 운행 중지...학교 휴교·방과후 수업 중단

지역민들 큰 불편

광주·전남지역이 10일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되고 열차가 멈춰서 시민 발목을 잡았다. 광주·전남의 유·초·중고가 휴식 모를 사고에 대비해 휴교하거나 방과후 수업을 일시 중단했다.

이날 한국교통해양안전연구단에 따르면 완도·목포·여수·고흥 등 광주·전남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53개 항로 83척 전체가 결항했다.

전날부터 20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하늘길도 막혔다.

광주공항에서는 10일 오전 10시 40분 출발 예정인 제주행 비행기가 결항된 것을 시작으로 출발 7편, 도착 7편이 모두 취소됐다.

무안공항에서도 새벽 5시 일본 기타큐슈행 비행기와 오전 7시 몽골 울란바토르행 비행기 등 2편이 잇따라 결항했으며, 여수공항에서도 총 4편의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날 호남선·전라선·경전선 등 총 181편의 열차 중 89편 운행을 중지했다.

또 호남선 16편은 광주송정-목포 구간을, 전라선 10편은 익산-여수엑스포 구간을 운행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광주·전남지역 하천변 산책로, 둔치주차장, 해수욕장 등 안전사고 및 침수우려 지역 각 142곳, 183곳의 출입도 전면 통제됐다.

광주지역 학교 가운데 8곳이 휴교했고, 20곳은 등교 시간을 조정했으며, 169곳은 방과 후 수업을 일시 중단했다.

전남지역도 학교 82곳이 휴교와 하교 시간 등을 조정했다.

무등산 63곳, 월출산 11곳, 다도해 64곳 등 국립공원 탐방로도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10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여수 등 전남 전역에 발령했던 태풍경보와 태풍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교통통제도 차츰 해제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태풍 중심의 왼쪽 위치...대형 재난은 면해 올해 3개 이상의 태풍 한반도에 영향 줄 듯

광주·전남 사실상 비켜가

광주·전남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됐던 제6호 태풍 '카눈'이 사실상 호남을 약간 비껴나 갔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지난 1951년 태풍을 관측한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 정중앙을 종단한 태풍이다.

카눈은 한반도에 강도 '강' (중심최대풍속 33%

이상 44% 미만)을 유지한 채 상륙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륙 직전 강도가 '중' (중심최대풍속 25%~33%)으로 한 단계 약화됐다.

카눈이 지면과 마찰해 중심 최대 풍속이 감소했고, 중심기압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경남과 전남 사이를 가로지른 카눈의 위험반원에 속하지 않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피해가 더 적었다. 태풍의 위험반원은 진행방향의 오른쪽인데, 광주·전남은 태풍의 중심에서 왼쪽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또 태풍이 상륙하면서 예상경로보다 살짝 동쪽으로 이동해 광주·전남에서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카눈이 지나갔지만 올해 3개 이상 태풍이 한반도를 영향권에 둘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년 26개 발생하고 그 중 4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 여파로 태풍들도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태풍은 더 오래 세력을 유지하며 강해진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10일 기상청이 발표한 1개월 예보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허위 응답 권유' 우승희 영암군수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우승희 영암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우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 A씨 등 5명에게는 벌금 70~90만원이 선고됐다.

우 군수와 부인 등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전화로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 “주소지 이전 등의 방법으로 거주지를 속여 권리당원이 된 선거권자들에게 대해 우 군수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과 결국 경선이 무효화돼 결과적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 | | |
|----------------|----------------------------|--------------|-----------------------|
| 자산규모 1조4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대표번호 1644-7990